



학의 새로운 몸짓

양산 사찰학춤과 창작 사찰학춤 한무대서 공연

'2006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 / 국립극장 27일까지

현대적 해석 차용무도 눈길

전통 양산사찰학춤 만으로는 심심하다? 전통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는 양산 사찰학춤과 창작 사찰학춤 '학이 밤에 내려와 우줄우줄 춤추니 마음이 넉넉하다' 가 한 무대에서 공연된다.

창작과 전통춤의 만남 국립극장의 야심 찬 기획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가 6회를 맞았다.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 2006'은 8월 2~27일 국립극장에서 전통춤과 창작춤의 향연을 벌인다.

양산 사찰학춤 공연은 8월 23~24일에 펼쳐지는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의 일곱 번째 무대. 국립무용단 이지영 단원이 '양산 사찰학춤에서의 자연형상적 동작 연구 및 해석'을 주제로 안무했다. 남성무용수 조재혁씨와 여성무용수 전정아 박윤정 이 단원이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인 창작 춤을 선보인다. 학춤의 동작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상에서부터 손짓 발짓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무용언어를 창작해냈다. 전통춤은 김덕평씨가 시연한다.

이지영씨는 "양산 사찰학춤을 응용해 학과 같이 고결하고 자유를 향해 비상하고 싶은 마음을 춤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사찰학춤과 더불어 눈길을 사로잡는 무대는 바로 차용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너는 왜 내게 아니고 너인가'이다. 국립

무용단 김남용 단원이 '차용무의 구도 연구와 동작의 심리적 분석'을 주제로 안무하고 춤추는 5인의 군무다.

인간 내면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의 죄악을 차용무의 혁신 모습을 통해 이끌어내고 차용이 보여줬던 미덕과 여유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김남용 단원은 "너" "나"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왜곡돼가는 관계를 인간관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표현하고자 했다"고 안무를 소개했다.

총 여덟 개 무대로 진행되는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는 양산 사찰학춤 외에도 김은이(국립무용단원)의 '문동광대춤 춤사위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김남용 단원은 "너" "나"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와 그

구' (5~6일), 최준명(이화여대 강사)의 '삼풀이춤의 정과 道의 의미' (12~13일), 노문선(국립무용단원)의 '진쇠춤에서 행해지는 몸체와 타악장단의 관계' (16~17일), 심현주(광주예술고교 강사)의 '진주검무의 유래와 춤사위 연구' (19~20일), 이혜경(선화예고·한예중 강사)의 '소고춤의 연희적 특징 연구' (26~27일) 등이 공연된다. (02)2280-4114-5 **강지연 기자**



전정아 박윤정 조재혁 이만영씨가 사찰학춤의 동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자에 색깔이?

中·日 컬러그림자극 '서유기' 공연, 27일까지



일본과 중국의 그림자극 대가들이 '서유기'를 빛과 그림자의 세계로 끌어왔다. 그림자극 하면 떠오르는 흑백 공연이 아닌 색깔있는 그림자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8월 15~27일 서울 센트럴시티 씽크야트홀에서 공연하는 '서유기'는 대형 스크린상에서 인형은 물론 배경까지 흑백의 세계가 아닌 컬러 그림자를 선사한다. 색이 있는 그림자, 목 허리 팔꿈치 손

목 무릎 발목 관절은 물론 눈동자까지 움직이는 80여개 인형들의 섬세한 동작이 압권이다. 특히 백골마녀가 해골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빗질을 하며 변신을 하는 장면은 마술과도 같아 관객들의 시선을 끈다.

중국 피영 극단은 인형의 컬러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당나귀와 소 등 동물가족을 오래 걸쳐 가공한 후 손으로 정교하게 색을 입혀 완성시켰다.

서유기는 일본 극단 카케보우시와 중국 피영 극단의 공동제작 작품으로 1988년 초연 이후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매료시킨 히트작이다. 2004년 서울 공연때 전석 매진 사례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200년 역사를 지닌 중국 피영 극단의 컬러그림자극의 결정판으로 불리기도 하는 작품이다.

KBS 만화영화 '날아라 슈퍼보드' 성우팀이 출연해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 역을 맡았다. 친근한 목소리 연기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낸 준비를 완료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로비에서 그림자 인형제작 모습과 원리를 소개하고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제1장 손오공 일행 길을 떠나다, 제2장 백골마녀의 동굴, 제3장 백골마녀의 변신, 제4장 백골마녀에게 잡힌 삼장법사, 제5장 손오공 도약, 제6장 손오공과 백골마녀의 한판 대결 등이다.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이 불경을 구하려 천축으로 여행하던 길에 만난 백골마녀와의 대결을 담았다. (02)2264-6684 **강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목 무릎 발목 관절은 물론 눈동자까지 움직이는 80여개 인형들의 섬세한 동작이 압권이다. 특히 백골마녀가 해골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빗질을 하며 변신을 하는 장면은 마술과도 같아 관객들의 시선을 끈다.

중국 피영 극단은 인형의 컬러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당나귀와 소 등 동물가족을 오래 걸쳐 가공한 후 손으로 정교하게 색을 입혀 완성시켰다.

서유기는 일본 극단 카케보우시와 중국 피영 극단의 공동제작 작품으로 1988년 초연 이후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매료시킨 히트작이다. 2004년 서울 공연때 전석 매진 사례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200년 역사를 지닌 중국 피영 극단의 컬러그림자극의 결정판으로 불리기도 하는 작품이다.

KBS 만화영화 '날아라 슈퍼보드' 성우팀이 출연해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 역을 맡았다. 친근한 목소리 연기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낸 준비를 완료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로비에서 그림자 인형제작 모습과 원리를 소개하고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제1장 손오공 일행 길을 떠나다, 제2장 백골마녀의 동굴, 제3장 백골마녀의 변신, 제4장 백골마녀에게 잡힌 삼장법사, 제5장 손오공 도약, 제6장 손오공과 백골마녀의 한판 대결 등이다.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이 불경을 구하려 천축으로 여행하던 길에 만난 백골마녀와의 대결을 담았다. (02)2264-6684 **강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유명 불자 강사 대거 출연

EBS-TV 방학특강 '나의 스무 살'에, 24일부터 3주간

EBS-TV가 여름방학을 맞아 사회 각 분야의 명사 15명을 초청, 그들의 젊은 날을 함께 돌아보며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훈이 될 이야기를 들어보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7월 24일부터 3주간 월·금요일 오후 1시10분에 방송하는 '청소년 방학특강-나의 스무 살'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3주 동안 교수 언론인 디자이너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 산악인 엄홍길씨, 패션 디자이너 이영희씨, 도법스님 등 불자들이 대거 강사로 나섰다.

첫주(7월 24~28일)에는 산악인 엄홍길, 시사만화가 박재동씨 등이 나와 '인생 외길, 한 우물을 파라'를 주제로 청소년기에 삶의 목표를 세우고 평생 그

길을 달려온 경험을 소개했다.

둘째주(31일~8월 4일)에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위해 평범함을 거부하고 욕심있게 살아온 인생 선배들을 만난다. 불교를 정신적 지주라고 털어놓는 패션 디자이너 이영희씨를 비롯해 2006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자인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 윤구병 변산 공동체 학교 대표 등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다.

마지막 주(8월 7~11일)에는 실상사에서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는 도법스님,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 등이 행복하면서도 성공한 인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한다.

강지연 기자

200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안숙선 명창 '홍보가' 공연

불자 안숙선 명창이 판소리 무대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심야 완창판소리 무대를 올해도 선보인다. 심야완창은 2002년 안숙선 명창이 '수궁가'를 선보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매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무대다.

한여름 밤 국립극장 야외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낭만과 풍류의 소리마당인 심야 완창판소리 안숙선 명창의 '홍보가'는 200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의 4번째 무대이다.

8월 12일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이 무대에서 안숙선 명창은 국립창극단의 제자 유수정 정미정 김차경 이영태씨와 함께 '김소희씨 홍보가'를 심야완창으로 공연한다.

200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는 이일주 명창의 심향가(10월 28일, 달오름극장), 유수정 명창의 훈향가(11월 25일, 달오름극장), 송수심 명창의 제야 완창판소리 홍보가(12월 30일, 달오름극장) 등으로 그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02)2280-4115-6 **강지연 기자**

달라이 라마 쓰던 철발우 백령도 연화정사에 기증



달라이 라마의 발우와 오색 타르초(사진 아래) 등 달라이 라마가 사용하던 소품들이 백령도 연화정사 발우전시관에 기증됐다. 연화정사 주지 지명스님은 달라이 라마가 연화정사 발우전시관에 발우 등을 기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달라이 라마의 발우는 철발우(사진 위)로 지름 26cm, 높이 22cm 크기이다. 발우와 함께 기도후 신도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며 나눠주는 오색 타르초, 창녀, 살구, 향 등도 함께 기증했다.

이번 달라이 라마의 발우 기증은 지명스님이 티베트 망명정부 다랍살라에 수개월에 걸쳐 요청한 끝에 성사된 것이다.

연화정사의 발우전시관은 올해 5월 개관, 석주 스님 발우,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이 출가 후 40여년간 써온 발우 등 80여 점의 발우를 전시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머리에 쓱쓱!!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明光文化院 www.mkmunhwa.com

-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92-9 / 전화 043)222-2257
 - 서울영업소 : 서울 중로구 당주동 145번지(롯데미도과 광화문빌딩 204호) 전화 02)720-0826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아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문에 속 행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중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부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범주사 도공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